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8년 6월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4 No.1, 80-87, June, 2008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김 희 숙[1] · 박 완 주[2]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은 Erikson의 인간의 발달 8단계 중 제 4 단계에 속하며 이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가정 밖의 더 넓은 사회로 들어가 교사나 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자아가 성장된다. 이와 관련된 성공적인 경험은 근면성·자기능력·숙달감·사회성·독립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나 실패하는 경우 아동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아 및 부적응행동을 나타내게 된다(Erikson, 1950; 도복늠 등, 2006).

특히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결핍이나 학습기회의 부족과 관련된 성장발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방임, 학대, 거부로 부모의 돌봄으로부터 방치되어 사회적, 심리적, 또는 문화적 박탈감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 부모의 긴장과 불안, 그로 인한 역기능적 양육방식이나 태도는 자녀에게 급속히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Barkley, 1981; 류지현, 2007).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그들은 다른 계층의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충동적이며 비행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지고 있다(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치될 경우 비행이나 파괴적 행동, 불안이나 위축행동 등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러 여러 가지 사회 부적응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은주와 이재연(1995)은 빈곤아동이 빈곤하지 않은 아동보다 실제적인 사회적 적응기술을 빨리 터득하여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 자아탄력성 변인은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적응과 관련된 개념으로써 그 수준에 따라 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이해리, 조한익, 2006).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환경적 요구에 따른 긴장을 잘 참아내고 충동을 통제하여 스트레스나 역경 또는 위협적인 환경에서도 행동문제나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하여 보다 나은 긍정적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가지며, 학교나 사회에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 있는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mezy, 1993; Block & Block, 1980).

지금까지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인성개발, 자아실현,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발달, 그리고 사회성발달 영역에서 효과를 보였으나 자아탄력성 증진의 효과를 연구를 한 것은 매우 미흡한 편이고 더욱이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연구는 자아탄력성 변인들의 관계연구에 비해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박완주, 2007; 이수기, 2008)

최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 일차예방의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 부각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주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사업에서 간호사들이 소외된 취약계층아동을 위해 대처

주요어 : 심성계발프로그램, 자아탄력성, 부적응행동
1)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2)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wanjupark@knu.ac.kr)
투고일: 2008년 4월 9일 심사완료일: 2008년 5월 19일 게재확정일: 2008년 5월 24일

능력 및 적응능력을 대변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병리적 문제나 비행행동을 줄이고 학교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MMTIC(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을 이용한 심성계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함으로써 지역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서의 유용하고 효율적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가설

- 심성계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탄력성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 심성계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적응행동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학령기 아동을 위한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지역 소재 6개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아동을 위한 같은 특성과 목적을 가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의 고학년 아동들로 프로그램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본 연구도구들의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로 편의표집 하였다. 실험처치의 확산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3 곳은 실험군으로, 3곳은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대상자 수는 두 집단 각각 20명이 되도록 자료수집 계획을 하고 시작되었으나, 실험군에서 3명, 대조군 4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함으로써 최종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17명, 대조군 16명, 총 33명 이었다.

연구 도구

● 심성계발프로그램(Personality Development Program)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령기 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키고자 MMTIC을 활용한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 표현력 격려, 자존감 높이기, 인생계획과 희망고취, 공격성 조절 및 문제해결능력 키우기 등을 포함한 8회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매 회기 당 45분씩 총 8주 동안 진행한 것을 말한다. 심성계발프로그램은 인간에 대한 현실이해, 자율적인 협동학습, 인간의 주체성·독자성·사회성의 계발, 창조력 계발, 긍정적 자아개념 확립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김려옥, 1995).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기능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러한 개인 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성격유형에 따른 인간의 장점, 자원, 건강한 특성, 잠재력 등을 발견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변화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김려옥(1995)의 심성계발프로그램과 김희숙(2007)의 중학생을 위한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을 초등학생 고학년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심성계발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자아탄력성은 환경적 요구에 따른 긴장을 인내하고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위협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하여 보다 나은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인간이 가진 속성(Block & Kremen, 1996)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은희(1996)가 아동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로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및 낙관성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박은희(1996)가 Block과 Kremen(1996)의 연구들을 기초로 구성요소를 개발한 척도이며 총 40문항으로 5개 하위영역,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아니다' 1점, '가끔 아니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대부분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의 자가보고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은희(1996)가 도구를 개발할 당시 신뢰도 Cronbach' α=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1이었다.

● 한국판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Behavior Problem Scale of Korean-Youth Self Report: BPS of K-YSR)

부적응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었으나 그 사회의 질서 규범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서 사회에 대하여 장해가 될 뿐 아니라 그 개인 자신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개인의 상태(교육대사전, 1992)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11-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응 및 정서, 행동적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Achenbach (1991)가 개발한 것을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및 홍강의 (1998)가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의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중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의 일부만 사용한 문미영(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K-YSR은 문제행동증후군척도에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등의 7개의 하위척도와 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 척도를 합하여 내재화 문제로, 비행, 공격성 척도를 합하여 외현화문제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총 문제행동을 9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8문항이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2점으로 Likert 3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행동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문미영(2000)의 연구에서 내재화문제 .91, 외현화문제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재화문제 .89, 외현화문제 .85이었고 전체는 .91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07년 4월 2부터 2007년 11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을 중재하기 전 같은 인구사회통계학적특성을 지닌 6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 접근방법과 자료 수집을 위한 제반 협조를 요청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로 사전조사를 미리 실시하였다. 7년간 MMTIC을 활용한 중학생 상담을 진행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장이면서 MMTIC 강사인 본 연구자와 지역정신보건센터 요원이 함께 교육 및 사전 훈련 후, 매주 1회 8주 동안 총 8회기의 심성계발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사후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고,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 점수의 차이에 대한 비교는 학년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공변량분석(ANC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실험군에서는 5학년 58.8%, 6학년이 41.2%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4학년이 68.8%, 5학년이 18.8%. 6학년이 12.5%였고, 성별 분포는 실험군은 남학생 29.4%, 여학생 70.6%, 대조군은 남학생 37.5%, 여학생 62.5%였다. 동거가족으로는 실험군은 부모 52.9%, 편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33)

Variables		Exp. (n=17)		Cont. (n=16)		χ^2	p
		N	%	N	%		
Grade	4 th	0	0.0	11	68.8	17.53	.000
	5 th	10	58.8	3	18.8		
	6 th	7	41.2	2	12.5		
Sex	Male	5	29.4	6	37.5	.24	.622
	Female	12	70.6	10	62.5		
Living with	Grandparents with single parent	3	17.7	2	12.5	3.78	.436
	Single parent	5	29.4	7	43.8		
	Parents	9	52.9	5	31.3		
	Others	0	0.0	2	12.5		
Number of close friends	Two	0	0.0	1	6.3	1.18	.277
	More than three	16	94.1	13	81.3		
	No recommend	1	5.9	2	12.5		
Religion	The same with parents's religion	7	41.2	6	37.5	.05	.829
	Different with parents's religion	10	58.8	10	62.5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부나 편모 29.4%, 조부모와 편부 또는 편모가 17.7% 순이었으며, 대조군은 편부 또는 편모 43.8%, 부모 31.3%, 기타 12.5%, 조부모와 편부 또는 편모가 12.5% 순이었다. 친한 친구 수는 3명 이상이 실험군 94.1% 대조군 81.3%이었고, 부모 종교는 실험군은 불일치 58.8% 일치 41.2%이었으며, 대조군은 불일치 62.5%, 일치 37.5%이었으며,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 차이 이외에는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종속변수 중 자아탄력성은 실험군 평균이 104.06±14.24점, 대조군 평균은 103.75±12.63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문제행동증후군에서도 실험군 평균 32.18±12.58점, 대조군 40.19±17.9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청소년문제행동증후군의 하위영역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 내재화문제,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외현화문제, 그리고 총 문제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두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가설 검정

• 가설 1. 심성계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자아탄력성 점수의 비교에서 일반적 특성 중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있었던 '학년'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심성계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비교에서 전체 자아탄력성은 실험군 110.24±15.81점, 대조군 105.44±11.79점으로 실험군이 더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3>.

• 가설 2. 심성계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적응행동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부적응행동 점수의 비교에서 일반적 특성 중 실험군과 대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N=33)

Variables			Exp.(n=17)		Cont.(n=16)		t	p
			M	SD	M	SD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59	3.36	22.06	4.37	0.39	.700
	Energy or vitality		23.12	4.47	21.75	3.36	0.99	.330
	Emotional control		16.88	3.04	17.38	3.36	-0.44	.662
	Curiosity		21.29	3.42	21.88	3.34	-0.49	.626
	Optimism		20.18	3.71	20.69	4.29	-0.37	.716
	Total ego-resilience		104.06	14.24	103.75	12.63	0.07	.948
BPS of K-YSR	Internalizing	Withdrawn	3.88	2.60	4.56	3.08	-0.69	.497
		Somatic complaints	3.41	3.04	4.50	2.92	-1.05	.303
		Anxious/depressed	7.71	4.47	11.06	5.87	-1.86	.073
		Total	15.00	8.68	20.13	10.66	-1.52	.139
	Social problems		3.00	2.96	3.69	2.36	-0.74	.468
	Attention problems		0.88	0.93	0.94	1.12	-0.15	.878
	Externalizing	Delinquent behavior	2.94	1.68	3.75	2.57	-1.06	.297
		Aggressive behavior	11.94	5.66	13.50	6.77	-0.72	.478
		Total	14.88	6.82	17.25	8.72	-0.87	.390
	Total BPS of K-YSR		32.18	12.58	40.19	17.99	-1.49	.146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s of ego-resili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fter adjusted by covariate (N=33)

Ego-resilience	Exp.(n=17)		Cont.(n=16)		F	p
	M	SD	M	SD		
Interpersonal relationship	23.06	3.85	22.25	3.11	.00	.984
Energy or vitality	23.41	4.14	23.00	3.43	.21	.647
Emotional control	18.29	4.00	17.31	3.24	.83	.370
Curiosity	22.94	3.56	21.94	4.04	.33	.572
Optimism	22.53	3.74	20.94	4.42	.42	.523
Total ego-resilience	110.24	15.81	105.44	11.79	.20	.656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s of BPS of K-YSR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fter adjusted by covariate (N=33)

K- YSR Variables		Exp.(n=17)		Cont.(n=16)		F	p
		M	SD	M	SD		
Internalizing problems	Withdrawn	2.29	2.31	4.31	2.73	3.68	.065
	Somatic complaints	2.53	2.21	4.13	3.07	1.47	.235
	Anxious/depressed	4.94	3.67	11.56	6.83	6.29	.018
	Total	9.76	6.35	20.00	11.89	5.18	.030
Social problems		2.06	2.22	4.31	2.63	6.29	.018
Thought problems		76	1.03	1.00	1.10	17	.680
Externalizing problems	Delinquent behavior	2.82	1.91	3.56	1.83	1.45	.239
	Aggressive behavior	9.76	5.43	14.38	5.02	11.78	.002
	Total	12.59	6.77	17.94	6.06	9.60	.004
Total BPS of K-YSR		24.29	12.40	41.19	16.72	9.66	.004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조군 간에서 차이가 있었던 '학년'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심성계발프로그램 후 실험군의 총문제행동점수는 24.29±12.40점, 대조군 41.19±16.72점으로 실험군의 총문제행동점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낮아져(F=9.66, p=.004)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4>.

하위요인인 내재화(F=5.18, p=.030), 우울·불안(F=6.29, p=.018)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현화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9.60, p=.004), 외현화의 하위요인인 공격성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1.78, p=.002), 사회적 미성숙은 실험군과 대조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29, p=.018) <Table 4>.

논 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많은 아동들이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아동청소년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아탄력성과 적응행동을 증진시키는 심성계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심성계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모두 8주 후에 향상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인성개발, 자아실현, 대인관계발달, 사회성발달, 긍정적 자아개념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있으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이 8주의 학습으로 유의하게 변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박완주(2007)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에서 8회기 후에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6회기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MMTIC을 활용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이 10회기의 프로그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신미숙(2003) 연구결과 및 서나라(2006)의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12회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후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아진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자아개념은 짧은 기간 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회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서서히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선영(2003)의 중학생을 위한 8회기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서의 효과가 있었다는 상반된 결과로 보아 자아탄력성의 내면적 변화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기간에 대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MMTIC을 활용한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통한 표현력 격려, 자존감 높이기, 인생계획과 희망고취 등은 각각 자아탄력성 개념의 속성들로 이미 5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증가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중재기간을 더 연장한다면 자아탄력성을 유의하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성계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적응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심성계발프로그램 중재 후 문제행동 증후군 평가의 하위척도 중 우울, 불안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기분이 우울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문제행동으로 보여준다는 Conger와 Peterson(1984)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외현화문제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문제와 자기표현 훈련을 함께 병행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실시함으로써 자가 보고에서 내제된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동시에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우울과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 박승희, 이형초 및 이정윤(2007)의 연구와 인지행동적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한 이영순, 이현림 및 천성문(2000)의 연구에서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한 것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얻었다. 그

러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우울·불안의 요소를 미리 고려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심성계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효과적으로 취약아동의 우울·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문제행동의 사회적 미성숙 영역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실험군에서 사회적 미성숙의 부적응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져 8회기의 사회기술 훈련이 사회적 미성숙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금동숙(2005)의 결손가정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명창순(2004)의 저소득층 이혼가정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사회성의 향상과 친사회적 행동이 향상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자아 증진 뿐 만 아니라 집단 상담과 사회기술 훈련으로 사회적 성숙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현화문제의 공격성에서도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어 전체 외현화문제행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심성계발프로그램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자존감 높이기, 자신의 행동과 남과의 상호작용을 집단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분노조절 및 문제해결 능력증진의 프로그램 효과로 부적응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서 사회적 기술훈련이나 또래 친구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관계적 차원과 집단 활동과 같은 행동적 차원, 그리고 자아개념 증진과 같은 인지행동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공격성에 효과적이었다는 류지현(2007)의 연구보고와 일치하였다. 즉, 아동의 욕구나 본능을 조절하는 개인의 긍정적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서 사회성의 증진과 자신의 부적응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10회기의 집단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부적응행동과 분노수준이 감소되었다는 박승희, 이형초 및 이정윤(2007)의 연구결과와 8회기의 집단 독서요법 프로그램이 아동의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이 유의하게 감소된 연구결과(임은숙, 2002)로도 지지되고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서 MMTIC을 활용한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우울·불안과 사회적 미성숙, 그리고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행동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공부방이나 보호와 관리의 1차적 예방시설로써의 역할만 해오던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구체적인 중재치료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사업의 확대방안에 큰 의의가 있으며 또한 정신보건센터나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 간호실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심성계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기간은 2007년 4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일개 도시의 6개 지역아동센터 학령기 아동으로서 실험군 17명, 대조군 16명으로 총 33명이었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사용한 유사실험 연구였으며, 심성계발프로그램, 자아탄력성 척도, 자가보고 청소년문제행동증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고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 점수의 차이에 대한 비교는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성계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 제 1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 심성계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적응행동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져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학령기 아동을 위한 심성계발프로그램은 아동의 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개 지역의 6개 지역아동센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표본수가 소수로 한정되어있어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비교적 장기간에 서서히 변화되는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심성계발프로그램의 회기를 확대 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MMTIC를 활용한 심성계발 프로그램 중재 후의 효과뿐 만아니라 지속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넷째, 지역아동센터 학령기 아동들의 부적응행동 감소를 위해 심성계발프로그램을 현장에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금동숙 (2005). *동화를 활용한 구조화된 집단놀이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1992). *교육학대사전.*

김려옥 (1995). *심성개발지도의 실제.* 서울: 한국인성개발.

김희숙 (2007). MMTIC 활용 대인관계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 85-93.

도복늠, 강문희, 강은실, 김문영, 김상남, 김은주, 김인홍, 김현미, 김혜옥, 김후자, 김희숙, 남경아, 박현숙, 배정이, 손경희, 손영주, 송예헌, 신정자, 안황란, 양승희, 오경옥, 이경리, 이경자, 이미련, 이삼순, 이정지, 이혜경, 전성숙, 정희숙, 정희영 (2006). *최신정신건강간호학개론*. 서울: 정담.

류지원 (2007).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아동의 우울, 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명창순 (2004). *독서요법을 통한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친사회성 개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주.

문미영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박승희, 이형초, 이정윤 (2007).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7*(2), 17-36.

박완주 (2007). *문학치료적 중재가 결손가정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구.

박은희 (1996).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서나라 (2006).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신미숙 (2003). *MMTIC을 활용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수기 (2008).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의 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선영 (2003).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이영순, 이현림, 천성문 (2000).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2*(1), 53-82.

이은주, 이재연 (1995).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 *아동학회지, 17*(2), 195-206.

이해리, 조한익 (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53-371.

임은숙 (2002). *독서요법 프로그램과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홍강의 (1998).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평가간의 관계: K-CBCL과 YSR의 하위요인 구조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1), 3-12.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적 접근*. 서울: 학지사.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Barkley, R. A. (1981). *Hyperactive children*. New York: Guiford Press.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 Pers Soc Psychol, 70*(2), 349-361.

Conger, J. J., & Peterson, A. C. (1984). *Adolescent and yout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643-692.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on.

Garmezy, N. (1993). Vulneability and resilience. In C.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esey &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Approaches i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Effects of a Personality Development Program on Ego-Resilience and Maladaptive Behavior in Children Using a Community Child Center

Kim, Hee-Sook[1] · Park, Wan-Ju[2]

1)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personality-development program on ego-resilience and maladaptive behavior of school age children. **Method:** This study us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desig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pr. 2007 to Nov. 2007. The subjects consisted of 33 children. The experimental group (n=17) participated in a self-development program that consisted of 8 sessions during an 8 week period, each session lasted for 45 minute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elf-development program an ego-resilience scale and behavior problem scale (BPPS)of K-YSR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Result:** The results of analyses indicated that the score of ego-resilience increased but not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in anxiety/depression, social problems, and aggressive behavior of BPS of K-YSR after the interventio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Personality-Development Program' was effective on maladaptive behavior.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use it in a community-based child center for maladaptive behavior in vulnerable children.

Key words : Personality development program, Ego-resilience, Maladaptive behavior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Wan-Ju*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 2-ga Jung-gu, Daegu, Korea
Tel: 82-53-420-4977 E-mail: wanjupark@knu.ac.kr